

# '무설지설' 임제선풍 해동에 꽃피워



태안사 대웅전에서 주지 종하스님의 지도하에 참선심법에 든 기행단.



태안사 배알문. 누구든지 머리를 깊숙히 숙이고 드나들수 밖에 없을 정도로 키가 낮은 이 문은 '하심'을 가르치는 문이다. 이 문을 지나면 해탈국사 부도담이 나온다.

해탈스님 부도담인 적인선사조를형정탑(보물 제273호). 적절한 비례와 조형미를 갖추어 장중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2000년 동안, 세치계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를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었을 능파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을 지나 기행단이 태안사 일주문(전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에 들어선 때가 새벽 4시. 동리산문(洞裏山門)의 본산 태안사는 전남 곡성군 동리산 서쪽 능선에 자리잡은 신라 고찰이다.

동이 뜨기 전 짙게 깔려있는 신새벽의 새파란 기운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태안사(주지 종하는 아홉 예불을 올리는 스님의 청정한 열불과 묵묵소리에 맞춰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줄의 횡서로 '동리산 태안사' 현관이 걸린 일주문을 지나 보제루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맞은편에서 선사의 가부좌 모습

30여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말기인 814년(신라 헌덕왕 6년) 이곳 태안사에 동리산문을 열고 선풍을 일으켰다. 이후 그의 법을 이었던 도선국사(827~898)와 공자대사(864~945) 등이 고려 왕권의 도움을 받아 태안사를 동리산문의 중심 도량으로 키웠다. 당시 백여개의 당우와 천여명의 스님이 있었고 송광사, 화엄사 등 전남지역 절 대부분이 태안사의 말사였다는 기록이 <태안사적기>에 전할 만큼 태안사의 사세는 대단히 융성했다고 전해진다.

일주문과 보제루 사이를 잇는 오솔길 오른쪽에 해탈스님의 제자 공자대사의 부도와 탐비(보물 제274·275호)가 마치 스님이 현현한 양 고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행단은 종각을 지나 대웅전에

## 태안사 고려초 당우 1백개 · 스님 1천여명 '대찰' 일주문서 대웅전까지 2백계단 마치 禪路인듯

청화스님 10년간 조실 주석...현재 금강선원 30여명 수행정진

처럼 당당한 대웅전 치마가 희미하게 다가왔다.

동리산문을 개창한 해탈국사(785~861)는 중국 남종선의 개창자 육조 혜능의 법맥을 이은 서당 지장선사를 만나 '무설지설 무법지법(無說之說 無法之法) 설하는 바 없이 설하고 법이 없는 가운데 있는 법이' 해동에 전해지면 더할 나위없이 대영이겠다'고 말하며 심인(心印)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말없이 설하고 없는 가운데 있는 법'을 해동에서도 꽃피우기 위해 해탈국사는 중국에서

들어와 삼배를 올렸다. 대웅전에는 이미 타불이 봉안돼 있다.

태안사는 고려 중기에 이르러 말사였던 송광사가 수선(修禪)의 본사로 독립하고,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에 밀리고 6·25전쟁 당시 대부분의 당우가 불타는 등 동리산문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문으로서 태안사의 선의 불꽃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선사로 이름난 청화스님이 85년부터 94년까지 10여년동안 조실로 주석하면서 대방의 선

### 7월 - 동리산문

명했다. 태안사에서 기행단의 시선을 가장 오래도록 잡아두었던 것은 적인선사조를형정탑(보물273호). 해탈스님의 부도인 이 탑은 경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부도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알문'이라는 작은 문을 지나야 하는데, 이 문은 너무 낮아 작은 키의 사람들조차 머리를 정중하게 굽히고 들어가야 할 정도다. 수행하는 데는 물론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하심(下心)을 가르치는 문처럼 느껴진다.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이 해탈스님의 부도탑은 끊임없이 정진하는 선객들의 경계를 살펴주고, 또 울타려주고 있는 듯 보인다. 부도탑 있는 언덕 자락에 금강선원이 있다. 현재 30여명의 선객들이 화두와 씨름하고 있다. 태안사 주지 종하스님은 "선객들이 아랄로 태안사 본래 면목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기행단은 천여년동안 선풍을 이어온 동리산문이 새롭게 증축된 선의 대중화를 선도하길 기원하면서 화엄사와 천은사로 발길을 옮겼다.

글=오종욱 기자(gobacoo@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해탈국사는

#### 814년 동리산문 개창

신라 원성왕 1년(785년) 경주에서 태어나 영주 부석사에서 화엄학을 익혔다. 자는 체공(體空), 해탈(惠哲)은 법명. 선불교가 전해지기 전인 814년(헌덕왕 6년)에 당나라로 가서 남종선 개창의 지장선사 문하에서 수선했다. 지장선사가 입적하자 839년(문성왕 1년)에 귀국했는데, 당시 반백성과 군왕이 그의 귀국을 반겼다는 기록이 적인선사조를형정탑비에 전해진다. 귀국후 태안사에 머무르면서 증생교화에 주력했으며, 문성왕이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설법과 정치의 정도를 청하기도 했다. 861년(경문왕 1년)에 입적할 때까지 왕이 적인(寂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문도로는 풍수도합설로 유명한 도선국사, 아(如)선사와 공자대사등 수백인.

### 화엄사

#### 인도승 연기조사 창건

화엄사(주지 종영)는 544년(신라 진흥왕 5년) 인도승 연기조사가 창건했다. 670년 신라의 외사대사가 화엄교학을 전파한 화엄 10월의 하나로 중창시켰다. 왕을 무어한 경계인 화엄세계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계가 그대로 드러난 화엄사상을 기초로 하여 지어진 사찰로 이름도 <화엄경>에서 따왔다. 각황전(국보 제67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사사지삼층석탑(국보 제35호) 등이 유명하다.

### 천은사

#### 지리산 3대사찰 꼽혀

천은사(주지 종고)는 화엄·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신라 중기인 828년(충무왕 3년)에 인도의 덕운스님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명산을 두루 살펴본 중 지리산에 들어와 천은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그 뒤 875년(헌강왕 1년)에 신라말의 유명한 고승 도선국사(827~898)가 장흥의 가지산에서 이곳으로 와 절을 중건했다. 고려 후기 충렬왕 때에는 남장제일선원으로 지정되기도 할 만큼 번창했다. 문화재로는 극락보전(전남도유형문화재 제50호), 아미타후불탱화(보물 제924호) 등이 있다.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물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석품 건강속 방식으로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 공명이 세균 없는 청결한 공간, 세계 최초로 발음 및 청각 효과가 있는 옥합,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옥합으로 여름철 시원함(내나무 방식 대응), 커피, 기류, 김치국물을 흘러도 결해로 남아주는 것으로 처리, 차량 방식으로 사용가능

크기 44x44cm  
\*용 연 국내산 천연 옥합  
\*용 산 불포지  
\*배양제 피코합합제 (무염제+비이오세라믹 처리)  
**가격: ₩9,000**

**더우십니까? 헌선명상 방식으로 선 심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학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식 수형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일일이 부분을 놓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질서가 없이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명상이나 좌에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식

크기 39x43cm  
**가격: ₩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물자들 모두가 함께하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재질: 순면 100% (20수)  
\*색상: 흰색  
\*인쇄: 나일론안테 (칼라)  
**가격: ₩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여 연꽃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발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세·사정별 인쇄해 드립니다.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가격: ₩750(1개)**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지대바 바위속에 숨은 영감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여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영웅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불인고 실스러운 산, 화,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성한 장소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대바위와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물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토로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취를 실감케 한다.

(역사) 대청도보작성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상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이론선 - 30분

**가격: ₩13,000**

**창조로 만든 수품서 그릇 받우**

\*화발우(4인) · 가격: 80,000원 무게: 2.7kg  
\*화발우(2인) · 가격: 30,000원 무게: 1kg  
(1인용 무게 불포지 포함 납부 안함)

**달마도 순공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대한 문공주 선생의 그림을 순공판(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고의 작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글의 자리가 있습니다.)

병자 크기 27cm x 33cm  
순공판 크기 10cm x 15cm  
순공판번호 No. 24256 호

**가격: ₩120,000**

물부다피아 쇼핑물 주문방법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mail.buddhapia.co.kr